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33 호 현대불교
2023년 4월 26일(음 3월 7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죽고 살고 인과 유전 모든 것이 다 내 한 점의 마음에 있다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초하루 보름 삼 일을 기도드리는 거와 정진하는 거 또 삼배를 올리는 거,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가 생긴 건가. 우리 부처님은 어디고 닿지 않는 데가 없고 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또 자유자재권을 가지시고 만법의 그 굴림을 여여하게 굴리신다는 말을 항상 합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는 부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왜 부처라고 하느냐 하면 가만히 있을 때는 그대로 일체 만물 대천세계 우주의 근본이 같이 돌아가는 때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을 때는. 그런데 생각을 일으켰다 하면 갖은 각색의 천차만별로 찰나찰나 생각을 내는 것입니다. 생각을 내면 그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찰나찰나 생각을 내는 데는 반드시 몸도 항상 찰나찰나 움죽거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배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완벽하게 알게 되면 삼배가 일배고 일배가 삼배야. 삼배가 구배고, 구배가 바로 삼배고, 삼배가 일배라. 그러면 삼천배가 일배도 될 수 있는 거죠. 이 도리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고정되지 않다는 실감과 실천을, 실험에 의해서 생활 속에서 아시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부처님은 어느 거든지 하실 수 있다.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모두가 자비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체 우주의 섭류가…, '생물'이라 하면 벌써 전체, 천체가 들어갑니다. 어느 거 생명 아닌 것이 없는 거를 말해서 생물이라고 그럽니다. '생물' 하면 그 생물 속에 동물도 식물도 무정물도 모두 한꺼번에 차원이 따로 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불성' 하면 전체가 들어가듯이. 그런데 그 생물 가운데 작든지 크든지 그 마음과 또는 생각 내는 거와 움죽거림은 다 같습니다. 풀잎 하나도 움죽거리지 않는 게 없고 생명 없는 게 없고, 그 마음 내는 것은 항상 누구나가 다 일체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때는 "주인공한테 모든 걸 맡겨 놔라. 그런다면 거기에서 다양하게 굴려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이 아프다 할 때 약을 따진다 하더라도 천 가지 만 가지가 되니 그 천 가지 만 가지 구차하게 이름을 부르고 천 가지 만 가지 찾아서, 내가 아프면 아픈 방향에 따라서 또는 아픈 데에 따라서 꼭 약을 써야 할 텐데 어떤 약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또 그게 한두 건이라야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서 공편하게 또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내 입장으로 따진다면 참 귀찮은 일입니다, 그게.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편리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체험한 얘기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이런 걸 느꼈죠. '야 참, 모든 게 살아나가는 게 귀찮구나.' 사람 사는 것도 천차만별로 움죽거려야 하고 천차만별의 이름이 있어야 하고, 천차만별의 이름을 알아야 그 종류를 찾을 테고 그 종류는 또 천차만별로 돼 있고 이러니 종류마다, 사람 종류도 차원도 또는 어떠한 약의 종류도 이름도 천차만별입니다. 또는 우리 살아나가는 데 천차만별로 이렇게 움죽거리는 이 방향 속에서, 또는 우리만 살아나간다 하면 모르겠지마는 돌 하나, 흙 하나도 전부 움죽거리지 않음이 없음으로써 바로 그것이 약의 종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다못해 물도 약이 되는데 물만 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풀잎을 수없이 베어다가 큰 가마솥에다 넣고 푹푹 삶아 보십시오. 나중엔 끓다 끓다 끓다 조청같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모두 어지럽게 생각을 하고 남의 말만 듣고 그렇게 사니까 어지러운 거지. 그래서 수만 개, 수만 짐을 베어서 고니까 똑 조청같이 되는데 그것을 쪼그만큼씩 하게 하려니까 거기에다가 풀뿌리나 이런 거 말린 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섞는다 해도 그렇고, 오징어 뼈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 섞어서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약입니다.

왜 그런가. 지, 수, 화, 풍이 전체 약의 근원도 되고, 살아나가는 데 근원도 되고, 법의 근원도 되고 일체 만법의 그 전율 모두, 자동전자, 무전통신, 잠재의식 이런 것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전부 모태가 돼서.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전부 약에만 종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우주간 법칙에도 종류가 돼 있고 또 우리 살아나가는 데에 가난과 부자 이런 것도 거기에 소관이 돼 있습니다. 모두의 근본입니다. 근본 모태가 돼서, 우리가 허망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는 아주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허망하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 물질 하나하나가 영원한 거지 영원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변해서, 요렇게 바뀌서 옮겨 갈 뿐이지 영원한 것이다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뭐냐. 우리가 공부하는 데에 제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요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풀이 만 개라면, 그 풀의 종류가 전부 선약이라고 한다면, 즉 말하자면 만 개가 전부 이 인체에 똑같이 쓰이는 풀이 아닙니다. 다 각각 돼 있습니다. 요거는 뭣에 먹고 요건 뭣에 먹고 요건 뭣에 먹고 하는 그것이 천차만별로 뭐,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따져요?

나는 그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물질로 본다면 이름도 천차만별이고 생김생김도 천차만별이고, 하고 돌아가는 것도 천차만별이니 이거 귀찮아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너 말이야. 너 물질이 있다면 나도 물질이 있고, 네 마음이 있다면 나도 마음이 있고, 네 마음 가운데에 선약이 있다면 나도 내 마음 가운데에 선약이 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부족할 땐 네가 받쳐 주고, 네가 부족할 땐 내가 주마.' 이렇게 한다면, 이 주인공한테 모든 걸 맡겨 놓는다면 주인공은 하나지 둘이 아니야, 모두가.

그런다면 물질로서 일일이 이름을 따지고 일일이 종류를 찾지 않아도 내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서, 만약에 어디가 아프다, 또 가난하다, 무슨 법에 걸렸다 이런 종류에 따라서 전체를, 하나하나 닥치는 대로 거기에다 맡겨 놓는다면 바로 거기에서 모든 분야와 같이 한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선약은 거기에 다 돼 있어. 그런데 일일이 그놈의 거를 종류를 따지자니 얼마나 살기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귀찮습니까.

내 오면가면 봐도 그렇고 참,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귀찮았던가. 내 참 잘 생각했지. 아니, 여러분도 생각을 내지 않는다면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이 숭상하지 않는다면 대우주의 근본의 원리 또는 활용 이 자체를, 또는 내가 한 발 한 발 옮겨 간다는 그 진화력 이런 거를 도저히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터득을 한다면 모두 우리가 편리하게 앉아서 천리만리 있는 약도, 즉 말하자면 불로초를 구할 수도 있는 법이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은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지만 참인간은 불로초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거?

여러분이 일일이 요거는 약풀이고 요거는 약풀이 아니고 이렇게 종류 종류를 따진다면 수효가 천차만별로 돼 있고 도대체 어떠한 이름과 어떠한 종류를 찾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되고 귀찮게 되고 인생살이가 고가 되지 않을 수 없고 도대체 그렇게 귀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 원 근본에다가 모두 놓으니까 근본끼리 전부 주고받습니다, 근본끼리. 그 뜻을 아신다면 아니, 저승에 가서 불로초는 구하지 못하리까.

그래서 안락사라는 것도 저승에 가서 모든 문서를 파악할 수 있고 자유자재권을 가져서 그거를 들춰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들춰 볼 게 있어서 들춰 보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근본에 넣으면 전부 보이게끔 돼 있습니다. 수명은 어떻게 돼 있고 또는 죄상이 얼마나 돼 있고 인과가 얼

☞ 22면으로 계속

